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도 관련요인

서대일¹ · 전만중 · 유병철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¹,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Related Factors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in Living Facility of the Disabled

Dae-Il Seo¹ · Man-Joong Jeon · Byeng-Chul Yu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sin University, Busan, Korea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Abstract

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supporting the disabled by assess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in the living facility of the disabled.

Method :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007 till September 2007.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153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in the living facility of the disabled in Bus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ver 12.0k) program.

Result : The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was 3.19 ± 0.43 . Job satisfaction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was high in the over 31 years old group, the male group, the group of caring 1-5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pectively. Job satisfaction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was influenced by gender and number of caring person.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was moderate level and was influenced by gender and number of caring disabled person. In order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and welfare of the disabled, we need national-wide support and legal system for the disabled and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Key words : job satisfaction,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 living facility of the disabled.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약물 오·남용,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의유행 등 다양한 장애 유발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는 2,010,595명으로 나타나 2000년 말의 1,449,500명에 비해 451,0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원방안은 생계보

장, 의료보장, 거주보장, 특수교육, 복지시설 등과 같이 개인적 해결보다 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이 없고, 주거문제와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의 보호이며 사회적 보호의 방법에는 시설보호,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시설보호가 가장 전통적인 보호형태에 속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은 1950년대는 15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90개소, 1990년대 118개소, 2002년도 213개소 17,959명, 2007년에는 288개소 20,5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⁴⁾ 또한, 기능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은 1980년대 이전의 단순 수용시설의 개념에서 80년대 이후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만족스러운

교신저자 : 유 병 철
주소 : 602-703,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 051-990-6425 FAX : 051-990-3081
E-mail : ybc777@kosinmed.or.kr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으며, 이러한 실태와 관련되어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최근에는 외형적인 문제보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관련된 인적 자원의 제한성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들 중 한가지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전국 76개 대학에서 매년 약 190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에 통합된 사회복지 연수원에서도 사회복지자격을 갖추기 위한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⁵⁾ 그러나 매년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비하여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여건은 열악하고 보수교육 등 전문성 강화의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다.⁶⁾ 2005년 전국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배치현황은 법정인원의 70.6%에 불과하며 특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의 경우 법정인원의 69.9%만을 충족하고 있다.⁴⁾ 장애인 생활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이루어 사회에 복귀하는 일을 돕는 것이며 장애인과 직원과의 인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만족은 직접 조직의 성과와 연계된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교사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신변자립에서부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이르기까지 중증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은 장애인의 보육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인력이 증가하고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이직과 전직이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7년 3월에서 9월 까지 부산에 위치한 18개 장애인 생활시설(인가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

사 1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부산의 18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문지 32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각 시설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전체 생활재활교사 317명 중 158명(49%)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154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가.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의 특성, 직무만족 측정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만족에 대한 문항은 Smith 등⁸⁾에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t Index)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은 7가지 하위척도인 업무관련(5문항), 감독관련(7문항), 보수관련(5문항), 승진관련(5문항), 동료관련(4문항), 시설관련(5문항), 이직관련(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아주 그렇다"(5점), "그렇다"(4점), "잘 모르겠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직무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전체 직무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894$ 이었으며 하위 구성요소인 업무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829$, 감독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938$, 보수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828$, 승진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823$, 동료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871$, 기관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809$, 이직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0.827$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 SPSS(ver. 12.0K)를 사용하여 t-test, one-way ANOVA 및 더미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6-30세가 93명(60.4%)로 가장 많았고 31세 이상 37명(24.0%), 25세 이하 24명(15.6%)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140명(90.9%)이었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자가 116명(75.4%)로 대부

분을 차지 하였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78명(50.6%),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112명(72.2%),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120명(82.2%), 가구수입이 400만원 초과자가 50명(33.1%)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Age(year)	≤ 25	24	15.6
	26 - 30	93	60.4
	31 ≤	37	24.0
Gender	Female	140	90.9
	Male	14	9.1
Marriage	Not married	116	75.4
	Married	34	22.0
	Others	4	2.6
Religion	Yes	76	49.4
	No	78	50.6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6	10.4
	2-year-course college	112	72.2
	Over University	26	16.8
Speciality	Social welfare	120	82.2
	Pedology or pedagogy	6	4.1
	Others	20	13.7
Household income (10,000 Won)	≤ 200	30	19.9
	201 - 300	38	25.2
	301- 400	33	21.9
	401 ≤	50	33.1
Economic role in the home	Whole family support	13	8.5
	Partial family support	95	62.1
	Not family support	42	29.4
Total		153	100

2.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으로 현재 자신이 돌보는 장애자의 수가 6-15명인 경우가 128명(84.2%)으로 대다수를 나타내었으며, 직업의 선택 동기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70명(45.8%)로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은 4-6년이 92명(59.7%), 현 근무 시설에서의 근무경력 3-5년이 61명(39.6%),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24명(80.5%)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Job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Number of caring person with disabilities	1 - 5	14	9.2
	6 - 15	128	84.2
	16 ≤	10	6.5
Purpose of job	For speciality	40	26.1
	For moneymaking	10	6.5
	For interest of welfare	70	45.8
	Others	33	21.6
Total tenure(year)	≤ 3	43	27.9
	4 - 6	92	59.7
	7 ≤	19	12.3
Tenure of present working facility (year)	≤ 2	43	27.9
	3 - 5	61	39.6
	6 ≤	50	32.5
License of social welfare	Yes	124	80.5
	No	30	19.5
Total		153	100

3.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장애인생활시설 재활교사들의 전체적인 직무만족도는 3.19 ± 0.43 (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7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동료 간의 관계 영역(3.77 ± 0.53)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직(3.64 ± 0.75), 업무(3.56 ± 0.58), 상사(3.04 ± 0.77), 기관(3.08 ± 0.50), 보수(2.93 ± 0.62), 승진(2.41 ± 0.63) 영역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Job satisfaction of the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Score of job satisfaction (Mean ± SD)
Work	3.56 ± 0.58
Higher officer	3.04 ± 0.77
Salary	2.93 ± 0.62
Promotion	2.41 ± 0.63
Relationship between colleague	3.77 ± 0.53
Institution	3.08 ± 0.50
Change of occupation	3.64 ± 0.75
Total job satisfaction	3.19 ± 0.43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31세 이상인 군에서 3.36 ± 0.50 , 26-30세인 군에서 3.16 ± 0.39 , 25세 이하인 군에서 3.03 ± 0.39 로 나타나 나이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 성별로는 남자에서

3.50±0.46, 여자에서 3.16±0.41로 나타나 남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 그 외에 종교가 있는 군에서 3.25±0.46, 결혼을 한 군에서 3.20±0.43,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이상인 군에서 3.23±0.48, 가구수입이 300만 원 대인 군에서 3.23±0.41, 가족의 생계를 모두 부담하는 군에서 3.44±0.70으로 다른 군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atisfaction score (Mean ± SD)	p
Age(years)	≤ 25	3.03 ± 0.39	0.01
	26 - 30	3.16 ± 0.39	
	31 ≤	3.36 ± 0.50	
Gender	Female	3.16 ± 0.41	0.00
	Male	3.50 ± 0.46	
Marriage	Not married	3.18 ± 0.75	0.86
	Married	3.20 ± 0.43	
	Others	3.28 ± 0.46	
Religion	Yes	3.25 ± 0.46	0.10
	No	3.13 ± 0.39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21 ± 0.24	0.83
	2-year-course college	3.17 ± 0.43	
	Over University	3.23 ± 0.48	
Speciality	Social welfare	3.16 ± 0.45	0.36
	Pedology or pedagogy	3.35 ± 0.27	
	Others	3.28 ± 0.37	
Household income (10,000 Won)	≤ 200	3.21 ± 0.50	0.66
	201 - 300	3.11 ± 0.36	
	301 - 400	3.23 ± 0.47	
	401 ≤	3.21 ± 0.41	
Economic role in the home	Whole family support	3.44 ± 0.70	0.10
	Partial family support	3.16 ± 0.39	
	Not family support	3.19 ± 0.40	

5.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자신이 돌보는 장애자의 수에 따라서는 1-5명을 돌보는 군에서 3.41±0.50, 6-15명을 돌보는 군에서 3.15±0.42, 16명 이상을 돌보는 군에서 3.42±0.28로 나타나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2). 그러나 직업 선택의 목적에서는 장애인 사회복지에 관심이 의해서 직업을 선택 하였다는 군이 3.28±0.44,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군에서 3.43±0.4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군에서 3.32±0.37로 나타나 다른 군들에 비하여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by job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atisfaction score (Mean ± SD)	p
Number of caring person with disabilities	1 - 5	3.41 ± 0.50	0.02
	6 - 15	3.15 ± 0.42	
	16 ≤	3.42 ± 0.28	
Purpose of job	For speciality	3.07 ± 0.44	0.08
	For moneymaking	3.14 ± 0.43	
	For interest of welfare	3.28 ± 0.44	
	Others	3.17 ± 0.37	
Total tenure(year)	≤ 3	3.10 ± 0.38	0.23
	4 - 6	3.19 ± 0.56	
	7 ≤	3.43 ± 0.43	
License of social welfare	Yes	3.16 ± 0.44	0.06
	No	3.32 ± 0.37	

6.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서비스 제공 장애인 수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직무만족도가 낮고, 돌보는 장애인의 수가 6-15명인 군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of study subjects

Factors	Classification	β	range	p
Age(years)	≤ 25	-0.087	0.087	0.636
	26 - 30	0.020		
	31 ≤	0		
Gender	Female	-0.285	0.285	0.021
	Male	0		
Religion	Yes	0.073	0.073	0.287
	No	0		
Number of caring person with disabilities	1 - 5	0.058	0.270	0.006
	6 - 15	-0.270		
	16 ≤	0		
Economic role in the home	Whole family support	0.268	0.268	0.114
	Partial family support	0.011		
	Not family support	0		

[R]²=0.294, p=0.00

고 찰

인간의 삶에 있어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며,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이들의 직무만족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직무만족 수준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 개선방안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등이 나타났으며 종교여부, 가정에서의 경제적 기여 등과 관련되어서도 유의성은 없었으나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무 특성은 현재 돌보고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선택 동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유의성은 없었으나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박수희⁹⁾, 오승택¹⁰⁾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직위가 높고 관리직의 비율이 높기에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적인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전체 연구대상자의 90.9%가 여성이어서 비교집단간의 분포의 불균질성에 의한 오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만족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수희⁹⁾, 오승택¹⁰⁾, 정세희¹¹⁾, 장은희¹²⁾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이고, 보수 및 경력을 인정받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추정되지만 일선 장애인 생활시설의 요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것은 향후 우수인력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타 전공자에 비해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회복지 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수희⁹⁾, 정세희¹¹⁾, 장은희¹²⁾의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특수교육기관에 비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의 근무 조건과 보수수준이 낮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게 된 동기 중 장애인 복지에 관심

이 높은 사람이 전공을 살리거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한다는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오상돈¹³⁾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과 관련된 동기와 계획이 오래되고 그에 따른 준비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며 장애인 시설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고려할 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무환경의 특성은 생활재활교사 1인당 서비스제공 장애인수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수희⁹⁾, 홍세희¹⁴⁾, 정세희¹¹⁾, 장은희¹²⁾, 오승택¹⁰⁾, 김갑수¹⁵⁾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1인당 돌보는 장애인이 5명 이하이거나 16명 이상인 군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6-15명인 군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수가 적을수록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나 16명 이상인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설명이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집단의 비율이 전체의 6%정도 이기에 나타난 바이어스라고 추정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결과로 응답자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7가지 하위척도 유형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결과 보통수준인 3.1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수진¹⁶⁾이 연구한 서울시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 수준인 3.14점, 1997년 박연희¹⁷⁾가 조사한 서울지역 사회복지관 운영여건이 선임사회복지사들의 직무만족수준인 3.24점, 2001년 박수희⁹⁾의 경기도 지역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수준인 3.04점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7가지 하위척도별 만족도가 높은 4가지 항목은 대체로 수직적·수평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동료만족, 전직·이직만족, 직무만족, 감독만족으로 나타났고,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수, 승진만족과 같은 개인적 욕구에 대한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생활재활교사들은 자신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이상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시설직원 인건비 보조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설직원

의 인건비 기준은 유사기관의 직원 보수규정과 상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 4호 봉과 일반직 공무원 8급 4호봉, 특수학교 교원 14호봉 간의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생활재활교사는 연간 11,323천 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16,761천원, 특수학교 교원은 19,896천원으로 나타난다.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생활재활교사의 임금수준은 68%에 불과하고 특수학교 교원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7%에 지나지 않는다.¹³⁾ 박태영¹⁸⁾에 의하면 장애인 생활시설 근무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을 낮은 급여수준(42.3%)이며, 직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급여수준의 개선(41.8%)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의 임금은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복지예산의 증액을 통한 임금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월 상당한 금액의 인건비 보조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주어진 여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임금 증액에 기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설 후원금의 일정 부분을 임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의 신규채용이나 기존 직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영역에 후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생각된다.¹⁹⁾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으나 연구전반에 몇 가지 제한점이 상존한다. 먼저 조사대상 지역이 부산으로 한정되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우편 조사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의 일반적 특성 중 소득 부분에 대한 문항이 세부적이지 않아 급여에 대한 직무만족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보편성이 높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인가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를 153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에서 9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도는 3.19 ± 0.43 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요인별로는 이직만족이 3.64 ± 0.75 로 가장 높았고 승진만족이 2.41 ± 0.6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성(gender)과 돌보는 장애인의 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자교사의 만족도가 남자교사보다 낮고, 5명 이하의 장애인을 돌보는 집단이 5-15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방안으로 장애인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교사 1인당 관리하는 장애인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서혜숙, 장애인 생활시설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 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수 및 생활인원 입소현황, 2002-2006
-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1993
-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 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1세기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99-5, 제 7회 R1 Korea재활심포지엄, 1999, 11-21
- 7) 오혜경,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실태 및 만족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8) Smith, P. C, Kendal, L. M. & Hulin,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Behavior, Chicago : Rand McNally, 1969
- 9) 박수희,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0) 오승택, 장애인요양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1) 정세희, 장애인 생활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2) 장은희, 생활재활교사의 인력증원이후 나타난 직무만족과 복지서비스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오상돈,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4) 홍세희, 장애인요양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5) 김갑수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1997
- 16) 이수진,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7) 박연희, 사회복지관 운영여건이 선임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18) 박태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발전위원회, 1999
- 19) 장애인시설협회, 장애인시설 생활보조원의 근무실태와 개선대책, 2000